

米麥농가 부부의 노동시간과 노동분담*

Labor time and Labor Division of the rural couples
cultivating rice and barley

농촌진흥청 생활개선과
생활지도사 김희순
서울대학교 소비자학과
조교수 최현자

Division of Home Economics, Rural Development Administration
Home Economics Extension Agent : Kim, Hee Soon
Dept. of Consumer Studies & Resource Management, Seoul National Univ.
Assistant Professor : Choe, Hyuncha

〈목 차〉

- | | |
|-----------------------|--------------|
| I. 서론 | IV. 연구결과의 해석 |
| II. 이론적 배경 및 관련 연구 고찰 | V. 결론 및 제언 |
| III. 연구방법 및 절차 | 참고문헌 |

〈Abstract〉

This study was to find out the status of labor division between rural husband and wife by measuring the labor time for tasks, the ratio of relative contribution toward work, and work segregation. Data used in this study were collected from 424 persons of 212 farm households mainly cultivating rice and barley.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

1) In the case of work directly related to farming, working hours of husband were significantly longer than those of wife during the farming and off-farming season. In contrast working hours of wife for housekeeping were significantly longer than those of husband during both seasons. 2) The ratio of relative contribution toward farming work of husband was a little higher than that of wife during farming and off-farming season. But this toward housekeeping work was less than that of wife. 3) The degree

* 본 논문은 2000년 2월 석사학위 논문의 일부를 발췌하여 실은 것임

of gender segregation in farming was 0.33 during the farming season and 0.01 during the off-farming season. The kinds of work and time distribution were relatively same. The degree of gender segregation in housekeeping was 0.79 during the farming season and 0.72 during the off-farming season. These values showed inequality of work segregation in the kind of work and time distribution.

◆ key word: 농가부부, 노동시간, 노동분담

I. 서론

농가의 호당 가구원수가 1967년 6.22명이던 것이 1995년 3.23명으로 절반 정도가 줄어들고(농림부, 1967; 한국은행, 1995), 또 자녀들도 학업이나 경제 활동을 위해 도시로 떠나감에 따라 농업노동을 부부가 전담하게 되었다. 특히 최근에는 비닐하우스 시설작물 재배면적의 증가로 농번기와 농한기의 구분이 없어짐으로서 농한기에도 여가시간을 갖는 것이 점차 어렵고, 비닐하우스 작업병과 유병율이 높아져, 농가부부의 노동강화와 심리적 부담, 건강상의 훼손을 초래할 우려가 높은 것으로 지적하고 있다(한경미, 1997a, 1997b).

이러한 과중한 노동부담하에서 건강하게 농촌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선행되어야 할 것이 부부사이의 평등한 노동분담이라고 하겠다. 가정내의 평등한 노동분담은 부인과 남편의 노동부담을 줄일 수 있으며, 시간배분에 있어서 부부간의 평등 실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이기영 외, 1994). 그러나 국제농업개발원에 의하면 농촌여성들 중 「무보수의 가족 종사자」 비율이 우리나라가 73.3%로 호주(14.0%)나 스웨덴(14.7%), 미국(49.2%)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농업인 신문, 1999). 이러한 결과는 도시 취업주부의 경우 가구소득에서 자신의 기여도가 뚜렷이 드러나는 반면, 농가주부는 상당시간을 수입 노동인 농업노동에 할애하면서도 다른 사람의 농장에 취업하지 않는 한 무급노동자로 취급받음으로써, 농업노동에서조차도 부인의 기여도가 제대로 평가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농가생산 및 소득에 있어서 부인의 노동에

대한 정당한 기여도가 제대로 평가될 수 있기 위해서는 부인과 남편의 노동분담 실태가 가사노동 뿐만 아니라 농업노동 영역에 있어서도 과제별로 정확히 제시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연구들은 주로 농촌주부들을 대상으로 한 농촌가정의 시간사용을 주제로 노동실태연구를 통해 시간분석을 한 연구와(김주숙, 1981; 김주숙, 1982; 권영자, 1987; 조희금, 1989; 윤소영, 1990) 농가부부를 대상으로 하되 생활시간 조사를 이용하여 절대적인 시간량만을 제시하거나 시간대 분석을 실시한 연구(농촌진흥청, 1979, 1983, 1988, 1993; 최은숙·이애순, 1988)로, 부부의 노동분담 자체에 초점을 맞추어 노동분담 수준을 비교분석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노동분담에 초점을 맞추어 절대적인 시간량 뿐 아니라 상대적인 기여도, 성별 노동분리 정도를 통해 노동유형별로 농가부부의 노동분담 실태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노동수행에 있어서 부부사이의 평등 정도를 진단하고, 농촌여성의 노동에 대한 경제적 가치를 파악하는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해 줄 것이다. 그리고 농촌 현장에서 농촌여성의 지위 향상을 위한 합리적인 노동관리와 시간배분 관련 교육 및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생활지도사들에게도 활용되어질 것이다.

II. 이론적 배경 및 관련 연구 고찰

1. 농업노동분담

사회는 노동자원을 활용하여 노동 생산성을 높이

고 사회통합을 이루고자 노동 분업이라는 사회제도를 만들어 일정한 규범에 따라 일을 분담하여 수행한다. 농업노동에서의 분업 또한 최소단위의 사회조직인 농가에서 가족 구성원간에 이루어지는 분업으로부터 시작된다고 볼 수 있다(정기환, 1997).

사회발전단계를 크게 수렵채취사회, 농경사회, 산업사회로 나누어 볼 때, 수렵 채취시대는 관습과 법에 의해 획일적으로 강제되는 노동 분업 양상을 보였다. 즉 여성은 종족 유지에 필수적인 자녀를 생산하고 식량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역할을 담당하였고, 남성들은 생존과 보전을 위한 전쟁과 수렵을 담당해왔다(Morgan, 1877; 정기환, 1997에서 재인용). 그러나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농가의 잉여 노동력이 취업을 위해 이농하고, 노동이 가능한 자녀들도 고등교육 이수를 위하여 취학하게 되면서 농가의 농업노동력은 대부분 부부 노동력으로 고착되었다. 즉 전통적으로 농경사회 속에서 가족 구성원의 노동은 사회가 지니는 관습과 가치관에 의해서 남자의 일과 여자의 일로 분명히 구분되었으나, 농업노동력의 부족현상은 한편으로는 농업의 기계화를, 다른 한편으로는 여성노동의 투입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농업유형을 낳게됨으로써, 1980년대에는 대부분의 농업생산활동에서 부인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나타나게 되었다.

특히 농업의 상업화, 즉 급속한 도시화에 따라 농산물을 판매용으로 재배하기 시작하면서 농가 여성의 농업노동량이 크게 증가하였다. 농가의 농업유형에 따라 여성농민의 참여정도를 비교해 본 김이선(1997)의 연구에서 보면, 전통적인 농업유형에 비해 상업농을 시행하는 농가에서 여성농민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경우가 두드러지게 많아 농업의 상업화가 진전될수록 여성농민은 공동경작자로서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농업에 종사하던 노동력의 이농과 자녀의 취학, 농업의 상업화 등은 남녀간 노동분야의 경계를 무너지게 했고, 공동으로 참여하는 노동을 증가하게 하였다. 실제로 농촌경제연구원의 조사결과, 전통적으로 여성의 노동분야였던 채소농업에 있어서도 남성의 참여가 두드러진 부분(수확 53.3%, 수확물 건조 42.9%, 수확물 포장 39.3%)

이 나타남으로써, 노동분업체계가 크게 달라져 후기 산업사회의 노동분업체계는 성별에 의한 구분보다는 구성원의 능력에 의해서 달라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정기환, 1997).

2. 가사노동분담

1994년을 세계가족의 해로 제정하면서 UN이 중심 방향의 하나로 설정한 주제가 바로 '동반자적 가족'이다. UN에서 제시한 '동반자적 가족'의 개념을 살펴보면 경제적 책임의 공유, 가사일의 공평한 분배, 협동적 구조, 평등한 권리와 권력의 사용, 성역할 개념의 융통성, 함께 하는 가족활동(family activity), 자녀양육의 공동책임, 공동의사결정, 그리고 변화에 대한 개방성 등을 주된 특징으로 열거하고 있다.

Kamball(1983)은 평등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살고 있는 부부들의 공통된 특징 중의 하나로 부양자 역할, 가사노동, 육아, 의사결정에 있어 성별분업체계에 기준하지 않고 융통성 있게 서로 분담하는 형태를 의미하는 권리와 책임의 공유를 들고 있다

또한 가족사회학에서도 부부의 평등성은 보통 가사노동의 분담실태 및 의사결정과정에서 부부가 얼마만큼 의무 또는 책임과 권리를 공히 분담하고 소유하는가를 측정함으로써 파악된다고 한다(박민자, 1992).

부부의 가사노동분담을 결정하는 관련요인을 규명하기 위한 이론으로는 이용가능한 시간 가설, 경제적 효율가설, 성역할 관념 가설, 상대적 자원가설 등이 널리 사용되고 있다(김의숙 외, 1986; 허경옥, 1994; 조미환, 1996; 문숙재 외 1997).

이용가능시간 가설(the time availability)은 시간제약으로 인하여 이용가능한 시간이 부족한 경우 가사노동에의 시간할애는 적어지게 된다는 것이며, 보통 시간제약의 정도는 주부의 취업상태 또는 수입노동시간으로 측정한다. 경제적 효율가설(the economic efficiency)은 가족전체의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가족의 가사노동시간이 합리적으로 배분된다고 보아 임금률이 높을수록 가사노동시간이 감소하며 부부 중 소득이 낮은 배우자가 가사노동을 더 많이 한다

고 설명한다. 성역할 관념가설(the sex-role attitude)은 성에 따른 역할, 부모역할, 주부의 취업, 남편의 가사노동 참여 등 성역할에 대한 관념이나 태도가 가사노동분담에 영향을 미친다는 가설로서 가사노동분담에 대한 많은 선행 연구들의 결과(Barnett, Baruch, 1987; Coverman, 1985, 문숙재 외, 1997에서 재인용)에서 이 가설의 영향력이 검증되었다. 상대적 자원가설(the relative resources)은 소득 및 교육수준, 직업 등 사회·경제적 변수 등의 개인 자원이 가사노동시간을 결정한다는 가설로서 소득, 교육, 직종 등의 지위가 높을 경우 가사노동과 교환될 수 있는 자원이 더욱 많으므로 이러한 자원을 더 많이 소유한 배우자의 가사노동시간은 감소하고 가사노동에 대한 선호 및 흥미가 많을수록 가사노동시간이 증가한다는 것이다(이기영 외, 1997).

3. 생활시간을 통한 노동분담 측정의 의의

1962년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착수된 이후 지난 30년 동안 한국사회는 전통적인 농업사회가 산업사회로 이행하는 격심한 구조적 변화를 겪어왔다. 산업화 과정에서 농촌가정의 구성원들은 행동이나 역할 및 책임도 달라지게 되었다. 즉, 농촌가정 내 각 가족원들은 생활 변화에 따라 일의 내용이 달라지면서 하루 24시간을 예전과 다르게 사용하게 되었다.

따라서 농촌가족구성원들의 생활시간을 파악하는 것은 그들의 생활시간내용과 작업내용, 농사일이나 가사일의 주담당자, 노동참여에서 취업노동의 비중 및 가족원의 노동분담 정도 등을 알게 해준다. 또한 생활시간을 이용한 노동분담연구를 통해 농촌가정의 가족구성원들이 노동시간을 사용할 때의 문제점을 규명하고 올바르게 균형있는 가정생활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문숙재, 1996).

부부의 시간사용 결정은 가계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의사결정이므로 진정한 의미의 부부간의 분담에 관한 비교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개인단위의 분

석보다 부부단위의 분석이 바람직하다(문숙재 외, 1997). 따라서 부부간의 노동분담은 상대적 의미의 시간(relative time) 개념으로 측정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제는 노동분업체계가 성별 구분보다는 구성원의 능력에 따라 가족과 사회의 기능이 발휘되어야 한다. 특히 농가의 경우 부부가 주요노동력이기 때문에 현재 부인들이 가족구성원으로서 수행하고 있는 역할과 능력이 제대로 발휘되기 위해서는 부인의 농업노동이 직업활동으로 인정되어야 하고, 이러한 맥락에서 부인의 농업노동 분담수준에 대한 정확한 진단 및 평가가 있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농가부부의 노동분담 문제에 대한 접근은 농업노동과 가사노동이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즉 부인의 농업노동 참여를 보조적인 일로 인식하고 있는 사회분위기와 남편들의 의식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부인의 총농업노동시간과 세부과제에 대한 분담 정도 및 기여도를 정확히 분석 제시해야 한다.

그러나 도시의 부부를 분석단위로 한 가사노동분담에 관한 연구는 있으나(박민자, 1992; 박주희, 1993; 문숙재 외, 1997; 이기영 외, 1997), 농가부부를 분석단위로 하여 농업 및 가사노동분담 모두에 초점을 맞추어 실시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III. 연구방법 및 절차

1. 연구문제

농가부부의 노동분담 실태 파악을 위해 조사대상을 미맥농가¹⁾ 부부로 하였는데, 이는 쌀과 보리 재배를 중심으로 하는 미맥농가는 전통적으로 전형적인 농가로 인식되어져 왔고, 농번기와 농한기의 구분이 비교적 뚜렷하여 노동시간의 차이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농가부부의 노동분담 실태 파악을 위해 노동유형별, 세부과제별로 먼저 절대적 의미의 시간인 주당 총노동시간과 과제별 수행시간을 알아

1) 농업조수입중 쌀과 보리 농사로 인한 조수입이 50% 이상인 농가(농가경제통계, 1996, 농림부)

보고자 한다. 다음은 절대적 시간량을 근거로 부인과 남편간의 농업 및 가사노동 분담이 어느 수준에서 이루어지는지를 나타내는 지표가 될 수 있는 상대적 기여도를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총 노동시간이 과제별 수행시간에 근거한 부부간의 과제 공유정도 혹은 분리정도와 함께 고려될 때만이 명확히 설명될 수 있고(박주희, 1993), 남편이 가사노동에 참여를 한다 하더라도 특정한 일에만 참여를 함으로써 성별 분업화 현상이 나타나는 것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부부가 수행하는 노동과제의 종류 또는 시간배분이 어느 정도 동일한지 또는 차이가 나는지를 보여주는 성별 노동분리 정도 파악을 통해 노동분담 실태를 파악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1] 노동유형별 농사시기에 따른 미맥농가 부부의 총노동시간과 과제별 수행시간은 어느 정도인가?

[연구문제2] 노동유형별 농사시기에 따른 미맥농가 부부의 노동에 대한 상대적 기여도는 어느 정도인가?

[연구문제3] 노동유형별 농사시기에 따른 부부의 성별 노동분리 정도는 어떠한가?

2. 변수의 측정

1) 총노동시간 및 과제별 수행시간

농업노동과 가사노동 각각에 대한 총노동시간 및 과제별 수행시간은 농가의 경우 농업노동과 가사노동 모두 평일과 휴일의 차이가 거의 없으며, 하루의 생활시간만을 가지고 볼 경우 극히 미미하게 시간을 사용하는 과제의 경우 노동분담의 정도 파악에 어려움이 우려되어 조사자의 관찰에 의해 기록된 2일간의 평균치에 7을 곱함으로써 주당 총노동시간을 산출하였다.

2) 노동의 상대적 기여도

부부의 총노동시간의 합 중에서 부인과 남편이 차지하는 정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부부의 총 노동시간

에 대한 각 배우자의 상대적 기여도를 측정하였으며, 농업노동과 가사노동 각각에 대해 산출하였다.

3) 성별 노동분리 정도(work segregation)

부부간의 노동분리 정도는 부인과 남편이 수행하는 노동 과제의 종류 또는 시간배분에 있어 어느 정도 동일한가 혹은 차이가 있는가를 의미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Blair&Lichter(1991)의 차이지수(the index of dissimilarity; D점수)를 이용하여 과제별 노동시간을 근거로 다양한 노동 과제에 대한 부인과 남편의 시간배분에 있어서의 분리 정도를 측정하였으며, 그 공식은 다음과 같다.

$$D = 1/2 \sum |w_i - h_i|$$

여기에서 w_i 는 부인의 총 노동시간중 과제 i 에 대해 소비되는 시간의 비율이며, h_i 는 남편의 총 노동시간 중 과제 i 에 대해 소비되는 시간의 비율이다.

이때, D점수는 부인과 남편이 노동과제에 분배하는 시간의 비율의 차이를 의미하는 것으로 성별 노동분리 정도를 나타내며, 0부터 1사이의 값을 갖는다. 따라서 D점수가 0이면 부인과 남편의 시간분배비가 균등한 것이고, 1에 가까울수록 성별 노동분리 정도가 뚜렷함을 의미한다.

3. 자료의 수집 및 분석

본 연구는 5년 간격으로 농촌진흥청에서 실시되고 있는 농가부부의 생활시간 조사자료 중 1998년의 노동시간 자료를 이용하였다.

먼저 조사지역은 미곡 생산량 및 재배면적이 많은 경기,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등 6개도의 농촌지역을 대상으로 각각 크게 중간, 평야, 산간의 세지대로 나누어, 각 지대별로 해당지대로서의 특성을 갖고 있는 4개 시군씩 총 72개시군을 선정한 다음 각 군별로 1개 마을씩 72개마을을 유의표집하였다. 농가표집은 영농규모를 고려하여 마을당 대농, 중농, 소농 각 1호씩 3농가를 유의표집하되 농업을 생업으로 하는 부부를 대상으로 216쌍의 432명을 선정하였다. 이중 농한기와 농번기의 조사대상이 다른 농

가와 주부 혼자 사는 4농가의 조사표 8부를 제외하고 212쌍의 424부를 최종분석에 활용하였다.

조사시기는 농작물의 성장 및 재배시기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미맥농가 생활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농한기(1998년 2월 16일~2월 28일 사이)와 농번기(1998년 5월 11일~5월 30일 사이)의 두시기에 걸쳐 농가당 정해진 기간 중 2일간씩 조사된 자료의 평균치를 활용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PC WIN을 활용하였으며, 사용된 분석기법은 조사대상의 일반특성, 총노동시간과 과제별 수행시간, 성별노동분리정도, 상대적기여도를 알아보기 위해 빈도, 백분율, 평균, 그리고 표준편차를 이용하였고, 노동시간과 상대적기여도는 부부간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t-test를 실시하였다.

〈표 3-1〉 조사대상농가의 일반적 특성

(n=212호)							
구 분		빈도(%)	평균	구 분		빈도(%)	평균
가족수	2명이하	18(8.5)	평균 4.9명	막내 자녀 나이	10세미만	41(19.3)	15.9
	3~4명	63(29.7)			11~19세	107(50.5)	
	5~6명	98(46.2)			20~29세	55(25.9)	
	7명이상	33(15.6)			30세이상	7(3.3)	
자녀수	없음	2(0.9)	평균 3.0명	농가 소득 (천원)	10,000미만	27(12.7)	23,819
	1~2명	80(37.7)			10,000 ~ 20,000미만	68(32.1)	
	3~4명	104(49.1)			20,000 ~ 30,000미만	55(25.9)	
	5명이상	26(12.2)			30,000이상	62(29.2)	
결혼 년수	10년이하	20(9.4)	평균 22.1년	농업 소득 (천원)	10,000미만	50(23.6)	19,377
	11~20년	89(42.0)			10,000 ~ 20,000미만	73(34.3)	
	21~30년	66(31.1)			20,000 ~ 30,000미만	47(22.2)	
	31년이상	37(17.5)			30,000이상	42(19.8)	
주부 나이	20대	8(3.8)	평균 44.6세	농외 소득 (천원)	없음	84(39.6)	4,506
	30대	53(25.0)			4,500미만	50(23.6)	
	40대	95(44.8)			4,500 ~ 9,000미만	42(19.8)	
	50대	41(19.3)			9,000이상	36(17.0)	
	60대	15(7.1)					
남편 나이	20대	2(0.9)	평균 48.7	경지 면적	1ha미만	59(27.8)	2.4ha
	30대	28(13.2)			1~2ha미만	68(32.1)	
	40대	87(41.0)			2ha이상	85(40.1)	
	50대	68(32.1)					
60대	27(12.7)						
주부의 교육 수준	국졸이하	103(48.5)		가 사 조력자	시부모	54(25.9)	
	중 졸	56(26.4)			자녀	25(24.5)	
	고졸이상	53(25.0)			남편	14(13.7)	
남편의 교육 수준	국졸이하	66(31.1)			기타	9(8.8)	
	중 졸	60(28.3)					
가 사 조력자 유 무	있음	102(48.1)					
	없음	110(51.9)					

4. 조사대상농가의 일반적 특성

조사대상 농가의 일반적 특성은 <표 3-1>에서 보는 바와 같다.

가족수는 평균 4.9명으로 전국 농가 평균 보다 1.8명이 많았으며, 자녀수는 평균 3.0명이었고, 막내자녀의 나이는 평균 15.9세였다. 부부의 결혼년수는 평균 22.1년이었고, 평균 연령은 부인 44.6세, 남편 48.7세였다. 교육수준을 보면, 부인은 국졸이 가장 많았고, 고졸이상은 25%였으며, 남편의 경우 고졸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국졸, 중졸 순이었다. 응답가구의 48.1%가 가사조력자가 있으며, 이 중에서 52.9%는 시부모가 도와주는 것으로 나타났고, 남편이라고 응답한 농가는 13.7% 정도였다.

호당 평균 경지면적은 2.4ha로 전국농가 평균 경지면적(1.4ha)의 거의 2배로 나타났다. 이는 농가 표집시 영농규모별로 동일한 비율로 유의표집하였기 때문에 발생한 결과로 사료된다. 연평균 농가소득은 전국농가 평균치(20,494천원, '98)보다 약14%가 높은 23,819천원으로 IMF이전과 비교해 전국농가 평균 수준이나 농업소득은 전국농가 평균치인 8,955천원의 2배가 넘는 19,377천원으로 집계되었다.

IV. 연구결과의 해석

1. 노동유형별 농사시기에 따른 부부의 노동시간

농사시기에 따라 부인과 남편이 시간상으로 어느 정도의 노동을 수행하는지 살펴본 결과, 노동유형별 주당 총노동시간은 <표 4-1>과 같다.

농번기의 경우 부인의 농업노동시간은 남편의 농업노동시간을 100%로 보았을 때 78% 수준까지 수행하고 있었고, 동시에 남편의 17배에 달하는 가사노동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선행연구(농진청, 1993; 김인숙, 1996)에서 농가부인의 과중한 노동부담을 지적하고 있는 것과 같은 결과이며, 또한 여성의 영농상 어려운 점으로서 1순위가 힘든 노동(76.3%), 2순위가 가사노동과의 중첩(57.4%)으로 나타난 연구결과(농경연, 1997)와도 일맥상통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농한기에는 부부의 농업노동시간이 감소하였으나 농번기와 마찬가지로 부부사이에 여전히 큰 차이를 보였다.

총노동시간만을 통해서는 알 수 없는 누가 어떤 과제를 주로 수행하는지 파악하기 위해 농사시기별, 과제별 수행시간을 조사한 결과 <표 4-2>, <표 4-3>과 같다.

농업노동과제별 수행시간은 밭작업과 판매·수매과제만 제외하고 남편이 더 많은 시간을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논작업을 제외한 대부분의 과제는 부부사이에 큰 차이가 나지 않고 있었고, 논작업은 남편의 수행시간의 약 53% 수준까지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전통적인 농업유형인 미맥농가에서도 점점 남녀간 농업노동분야의 경계가 무너져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리고 전통적인 농업 유형에 비해 상업농을 시행하는 농가에서 여성농민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경우가 두드러지게 많아졌다는 연구결과(김이선, 1997)를 볼 때 농업의 상업농화가 진전될수록 여성농민은 공동경작자로서 또는 더 많

<표 4-1> 노동유형별 농사시기에 따른 주당 평균 총노동시간

(단위 : 시간)

구 분	농번기			농한기		
	부인	남편	t값	부인	남편	t값
농업노동	58.7	75.4	8.56***	20.2	33.4	6.58***
가사노동	31.2	1.8	-26.06***	36.8	5.0	-28.75***
합 계	89.9	77.2	-7.91***	57.0	38.4	-9.71***

*** p < .001

〈표 4-2〉 농업노동과제별 농사시기에 따른 주당 평균 수행시간

(단위 : 시간)

구 분	농번기			농한기		
	부인(%)	남편(%)	t값	부인(%)	남편(%)	t값
논 작 업	26.0(44.3)	48.9(64.8)	8.67***	-	0.0(0.0)	1.35
밭 작 업	24.6(41.9)	13.7(18.2)	-4.98***	12.7(62.9)	15.8(47.5)	1.88
영농준비	0.7(1.2)	3.5(4.6)	8.05***	2.7(13.4)	8.1(24.3)	5.15***
양 축	2.3(3.9)	3.6(4.8)	2.54*	2.6(12.9)	6.5(19.5)	5.65***
이 동	4.2(7.2)	5.1(6.8)	2.79**	1.8(8.9)	2.3(6.9)	2.04*
판매·수매	0.9(1.5)	0.6(0.8)	-0.74	0.4(1.9)	0.6(1.8)	0.82

* p < .05, ** p < .01, *** p < .001

〈표 4-3〉 가사노동과제별 농사시기에 따른 주당 평균 수행시간

(단위 : 시간)

구 분	농번기			농한기		
	부인(%)	남편(%)	t값	부인(%)	남편(%)	t값
식 생 활	16.3(52.2)	0.1(0.0)	-33.34***	18.7(50.8)	0.4(7.8)	-36.99***
의 생 활	3.3(10.6)	0.0(0.0)	-17.51***	4.6(12.5)	0.0(0.0)	-21.35***
주 생 활	3.8(12.2)	0.5(27.8)	-16.69***	6.4(17.4)	2.4(47.1)	-7.67***
가 계 관 리	0.2(0.6)	0.2(11.1)	-0.24	0.6(1.6)	0.5(9.8)	-0.79
구 매	1.0(3.2)	0.2(11.1)	-4.15***	1.6(4.4)	0.3(5.9)	-4.96***
자 녀 돌 보 기	3.1(9.9)	0.7(38.9)	-5.46***	4.2(11.4)	1.3(25.5)	-5.68***
새 참	3.4(10.9)	-	-	0.5(1.4)	-	-
기 타	0.0(0.0)	0.0(0.0)	-0.35	0.2(0.5)	0.2(3.9)	0.31

*** p < .001

이 농업노동에 참여하게 될 것이며, 후기 산업사회의 노동분업체계가 성별에 의한 구분보다는 구성원의 능력에 의해서 달라질 것이라는 전망(정기환, 1997)을 지지해 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가사노동시간의 경우 도시의 전일제 근로자 부인의 평일 3.15시간(이기영 외, 1997)보다 긴 시간이었다. 그리고 전통적으로 여성적인 과제로 인식 되어오고 있는 식생활 및 의생활과제는 가사노동시간중 절반이상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편의 참여시간은 아주 미미하였다. 이는 Bergen(1990; 문숙재 외, 1997에서 재인용)의 연구결과와 마찬가지로 남편의 가사노동참여는 보다 남성중심형 과제에 치중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며, 가사노동분담

에 있어 성별 분업이 뚜렷한 농촌사회의 현실을 반영하는 것이다.

2. 노동유형별 농사시기에 따른 부부노동의 상대적 기여도

절대적 시간량을 근거로 부인과 남편간의 농업 및 가사노동 부담이 어느 수준에서 이루어지는지를 나타내는 지표가 될 수 있는 상대적 기여도를 살펴 본 결과 〈표 4-4〉에서와 같이 농번기, 농한기 모두 부부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먼저 총노동시간에 대한 상대적 기여도를 보면, 가사노동의 경우 농번기와 농한기 모두 남편이 겨우

〈표 4-4〉 노동유형별 농사시기에 따른 부부노동의 상대적 기여도

(단위 : %)

구 분	농번기			농한기		
	부인의 상대적기여도	남편의 상대적기여도	t값	부인의 상대적기여도	남편의 상대적기여도	t값
농업노동	42.9	57.1	11.20***	37.3	62.7	9.71***
가사노동	95.2	4.8	-119.25***	90.0	9.9	-62.57***

*** p < .001

10%미만의 기여도를 보인 것에 비해, 농업노동의 경우 부인이 농번기와 농한기 각각 43%, 37%의 기여도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총농업노동시간에서 부인과 남편의 참여비율이 40:60으로 나타난 한경미(1997b)의 연구결과와 거의 비슷하였다. 그리고 총가사노동에 대한 배우자의 상대적 기여도도 한경미(1997b)의 연구결과에서 80:20으로 나타난 것과 비교해, 부인의 기여도는 더 높아졌으며, 남편은 더 낮게 나타났다.

과제별 배우자의 상대적 기여도는 〈표 4-5〉와 〈표 4-6〉과 같다.

농번기 농업노동과제의 경우 부인은 과제에 따라

최소 14.3%에서 최고 70.4%까지 기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으나, 남편의 가사노동과제별 기여도는 최고 높은 과제가 30.9%로 부인의 노동이 극히 집중되지 않는 과제에 몰려 있었고, 전혀 참여를 하지 않거나 참여하더라도 극히 미미한 시간을 참여함으로써 상대적 기여도가 10%미만인 경우도 있었다. 그리고 농사일이 적은 농한기에도 농번기와 비슷한 경향을 보였는데, 이는 성역할에 있어서 아직까지도 농촌의 보수적이고 전통적인면이 상당히 반영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표 4-5〉 농업노동과제별 농사시기에 따른 부부노동의 상대적 기여도

(단위 : %)

구 분	농번기			농한기		
	부인의 상대적기여도	남편의 상대적기여도	t값	부인의 상대적기여도	남편의 상대적기여도	t값
논작업 (n=199,3)	28.1	71.9	18.89***	-	100.0	-
밭작업 (n=152,164)	70.4	29.6	-12.86***	50.6	49.4	-0.33
영농준비 (n=147,139)	14.3	85.7	24.37***	26.6	73.4	1.12***
양축 (n=140,165)	38.6	61.4	5.09**	34.7	65.3	7.15***
이동 (n=202,157)	45.8	54.2	4.39**	47.4	52.6	1.51
판매·수매 (n=20,25)	64.2	35.8	-2.11	33.7	66.3	2.61*

(n=농번기,농한기); * p < .05, ** p < .01, *** p < .001

〈표 4-6〉 가사노동과제별 농사시기에 따른 부부노동의 상대적 기여도

(단위 : %)

구 분	농번기			농한기		
	부인의 상대적기여도	남편의 상대적기여도	t값	부인의 상대적기여도	남편의 상대적기여도	t값
식생활 (n=212,212)	99.4	0.6	-345.60***	98.0	2.0	-160.38***
의생활 (n=186,193)	99.2	0.8	-122.85***	99.7	0.3	-419.29***
주생활 (n=202,211)	89.5	10.5	-40.79***	83.3	16.7	-29.17***
가계관리 (n=39,76)	69.1	30.9	-3.96***	69.2	30.8	-5.59***
구매 (n=42,57)	83.0	17.0	-8.85***	84.3	15.7	-12.02***
자녀들보기 (n=94,120)	80.0	20.0	-13.19***	83.9	16.1	-19.09***
새참 (n=144,44)	100.0	-	-	100.0	-	-
기타 (n=11,26)	-	-	-1.77	51.6	48.4	-0.24

(n=농번기,농한기); * p <.05, ** < .01, *** p < .001

3. 노동유형별 농사시기에 따른 부부의 성별 노동 분리 정도

끝으로 농업노동과 가사노동 각각의 과제에 대해 서 부부가 어느 정도 과제를 공유 또는 분리하여 수행하는지 차이지수(D)를 산출한 결과, 농사시기별 평균 성별 노동분리 정도와 분포는 〈표 4-7〉과 같다.

먼저 농번기 농업노동의 성별 노동분리 정도를 보면, 평균 0.33으로 비교적 낮게 나타났는데, 이는 보조적인 역할만을 수행하던 부인들이 농업생산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됨으로써 나타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분포상으로는 성별 노동분리 정도가 비교적 낮다고 볼 수 있는 0.00-0.25사이가 52.4%로 가장 많았고, 차이지수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볼 수 있는 0.76-1.00 사이는 10.0% 정도였다.

반면 가사노동의 차이지수는 0.79로 부인과 남편이 수행하는 가사노동 과제의 종류가 상당히 분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남편이 현재 수행하고

있는 가사노동 과제 중 79%를 다른 과제 수행에 투자해야 다양한 과제에 소비하는 부부의 가사노동 시간 분배 비율이 동등해짐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로 0.76-1.00 사이의 심한 분리정도를 보인 경우가 67.7%였다.

그리고 농한기의 경우는 농업노동에 대한 차이지수가 1.474E-02로 0에 가깝게 산출되어 부부간에 과제를 거의 동등하게 수행함으로써 성별 노동분리 정도가 아주 낮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98.4%가 0.00-0.25에 분포되어 있고, 나머지는 0.26-0.50 사이에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사노동의 경우는 농번기보다 약간 낮기는 하나 여전히 높은 분리정도를 보였다.

이상 농가의 주요 노동력인 부부를 대상으로 노동분담 자체에 초점을 맞추어 다양한 방법으로 그 실태를 파악한 결과, 농업노동의 경우 농번기와 농한기 모두 부인의 참여시간이 길어지면서 성별 노동분

〈표 4-7〉 노동유형별 농사시기에 따른 부부의 성별 노동분리 정도

구 분		농번기		농한기	
		빈도(%)	평균	빈도(%)	평균
농업노동 D지수 (n=210,193)	.00-.25	110(52.4)	0.33	190(98.4)	1.474E-0.02
	.26-.50	46(21.7)		3(1.6)	
	.51-.75	33(15.7)		-	
	.76-1.00	21(10.0)		-	
가사노동 D지수 (n=96,154)	.00-.25	2(2.1)	0.79	3(1.9)	0.72
	.26-.50	9(9.4)		24(15.6)	
	.51-.75	20(20.8)		47(30.5)	
	.76-1.00	65(67.7)		80(51.9)	

(n=농번기,농한기)

리 정도가 낮게 나타난 반면, 가사노동시간은 농사 시기와 상관없이 대부분 부인이 전담함으로써 부부간의 노동분리 정도가 크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앞으로 부인의 농업경영자로서의 역할이 더욱 커질 것을 생각할 때 보다 적극적인 노동부담 경감방안 마련은 물론 부인의 노동 댓가가 정당하게 평가받을 수 있는 방안이 시급하게 제시되어야 함을 보여 주는 것이다.

V. 결론 및 제언

위와 같은 미맥농가부부의 노동시간 및 노동분담에 관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첫째, 농업노동에 있어서는 노동시간면에서 뿐 아니라 과제별 분배면에서도 농사시기와 상관없이 부부간에 상당히 균등하게 시간 배분이 이루어짐으로써 남편이 수행하고 있는 농업노동의 상당부분을 부인이 분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가사노동에 있어서는 농사일이 적은 농한기에도 남편의 경우 줄어든 농업노동시간을 가사노동을 위해 할애하지 않음으로써 여전히 부인들은 농번기와 농한기 모두 가사노동을 전담할 수 밖에 없는 현실로 급변하는 사회분위기 속에서 아직까지도 농촌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성역할 고정관념을 깨기

위한 의식개혁운동이 절실히 요구된다.

따라서 농가부부의 균등한 노동분담 촉진 및 효율적인 노동 수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먼저, 농촌의 경우 주로 전통적인 성 역할에 대한 강한 고정관념으로 부인과 남편사이의 불공평한 노동분담이 야기되므로 먼저 의식전환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의식을 바꿀 수 있는 계기 마련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개발되어야 하며, 농촌현장의 지도자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이런 프로그램들을 도입하여 지속 운영하여야 한다. 이러한 전통적인 고정관념을 깰 수 있는 교육과정과 프로그램에는 반드시 농가부부가 함께 참여하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또한 농가부부의 노동시간 관련 자료 또는 자신들의 생활시간 자료를 통해 부부 각각의 노동시간을 산출하여 비교해 볼 있는 시간을 마련하고, 스스로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산출된 부부 자신들의 노동시간을 근거로 서로의 노동가치를 산출해 볼 수 있는 계기를 통해 배우자의 노동 댓가를 제대로 평가하고 있는지 서로 진단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농가부부의 합리적인 노동 및 시간 관리지침 마련 등의 방법을 통해 가족원내 노동분담 분위기를 조성하고, 사회적으로 농업 및 가사노동 조력자를 제공할 수 있는 제도 마련 노력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균등한 가사노동 분담과 더불어 농가부인의 농업담당자로서의 역할은 현재도 매우 중요하며 앞으로도 더욱 커질 것이라고 전망되고 있다. 따라서 농업노동에의 참여율이 높아지고 있는 농촌여성들의 농작업 참여에 대한 소중함을 올바르게 이해하여야 하며, 다양한 농작업 보조기구의 개발 보급 등을 통해 농작업에 따른 각종 부담을 경감시키고 역할을 최소화시켜야 한다. 그리고 제도적으로도 여성농업인의 권리를 인정할 수 있는 법적 조치들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끝으로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면,

먼저, 농업노동의 주년화 현상을 보이고 있는 농업노동의 증대로 농가부부의 노동량이 더욱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미흡농가 부부만을 대상으로 수행한 본 연구의 결과를 전 농가에 확대 적용할 수 없는 제한점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추후 농업 유형에 따른 노동분담 실태의 비교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다음으로, 본 연구에서는 노동 분담 실태를 수행 시간과 과제를 통해서만 살펴보았는데, 이 방법만으로는 파악될 수 없는 미세한 측면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측면들을 지나쳐 버릴 수 있는 제한점을 갖고 있다. 즉 노동수행의 양적인 면보다도 수행의 질적인 측면까지도 고려한 연구가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노동시간과 상대적 기여도, 노동 수행의 성별 분리 정도를 통해 노동분담 실태만을 살펴보았는데, 추후 연구에서는 노동분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밝혀냄으로써 보다 여러 측면에서 노동분담의 불공평성을 시정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권영자(1987). 농촌여성의 노동실태에 관한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 김이선(1997). 개방농정체제에서의 여성의 농업참여에 관한 연구-충청남도 3개마을 사례연구, 한국여성개발원.
- 김주숙(1981). 한국농촌여성연구-5개부락 실태조사를 중심으로 - 카톨릭 농촌여성회 자료 2.
- _____ (1982). 농촌여성의 농업생산 참여의 실태와 문제점, 농촌경제, 5(2).
- 농림부 (1970-1996 각년도), 농림수산통계연보.
- 농업인 신문 1999. 7. 10일자.
- 농촌진흥청(1979, 1983, 1988, 1993). 농가주부 및 경영주의 생활시간 분석 보고서.
- 문숙재(1996). 생활시간연구, 학지사.
- 문숙재·허경옥·홍윤정(1997). 부부간 가사노동분담과 공평성 인지도가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35(2)
- 박민자(1992). 부부관계의 평등성, 여성한국사회연구회(편), 한국가족의 부부관계, 사회문화연구소.
- 박주희(1993). "취업 부부의 가사노동시간과 성별 분리 정도",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충선(1995). 맞벌이 가족 연구의 접근방법, 한국가족학연구회(편), 맞벌이 가정의 가족문제, 하우.
- 윤소영(1990). 농촌주부의 노동실태에 관한 연구 - 경기도 여주군 북내면 덕산리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이기영·김외숙·서창원·이승미(1994). 도시근로자 가정 부부의 생활시간구조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2(1).
- 이기영·이연숙·김외숙·조희금(1997). 한일 양국 근로자 부부의 가사노동분담,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1(2)
- 정기환(1997). 농가여성의 노동력 구조와 경제활동 실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조희금(1989). 농촌주부의 가사노동에 관한 연구(Ⅱ), 한국가정관리학회지 7(2).
- 최은숙·이애순(1988). 농가주부 및 경영주의 생활시간 분석, 농업교육학회지.
- 한경미(1997a). 농가부부의 노동과 여가 : 선행연구 분석을 통한 가족복지대책 모색, 대한가정학회지 35(1).
- _____ (1997b). 전남지역 농가부부의 노동과 여가 : 의식 및 시간분석, 대한가정학회지 35(6).
- 한경혜(1994). 동반자적 부부관계를 지향하는 가족,

- '94세계가정의 해 기념 세미나 · 열린사회와 가족,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 Kamball(1983). <평등한 부부>, 한국여성개발원 역 (1988). 한국여성개발원
- Berk, S. F(1985). *The Gender Factory: The Appointment of Work on American Household*, New York: Plenum
- Hartman, Heidi.(1981). "The Family as The Locus of Gender, Class and Political Struggle : The Example of Housework", *Signs*, June 1981.
- Morgan, Lewis Henry(1877). *Ancient Society*, 최달곤 · 정동호 공역(1979), 「고대 사회」, 현암사.